



## 최초의 대화

송중웅/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친** 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극적인 아이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이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사교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물어본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그렇게 소극적이고 비사교적이 된데에는 부모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모른다.

아이들은 생후 몇 주만 되면 사람들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그러면 주위 어른들은 반가워하면서 웃고, 얼르고, 아이 몸을 만진다. 그러면 아기는 더 좋아하고, 아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더 기뻐한다. 조금 더 크면 깍깍 놀이를 즐긴다. 깍깍 놀이를 할 때도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웃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른과 아기는 비록 의미가 담긴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상대의 반응에 응답하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장면들이 아이가 어른들과 나누는 최초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최초의 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아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사람들이 더 신나서 반응하는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 같겠지'라는 것을 몸전체로 느낀다. 또한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대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생각의 발달은 미숙하기 때문에 말로 정리하지는 못하지만 몸과 소리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주고 받는 것, 환경

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 능력, 사교성, 그리고 적극성과 자신감의 기본적인 틀이 이 때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단지 말의 피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의미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오늘 피곤해"라고 말하면, 아이는 "친구가 피곤하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오늘은 친구가 쉬고 싶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라는 것까지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깊은 의미는 책이나 방송에서 배울 수 없으며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치면서 배우는 것이며, 부모와 아기간에 벌어지는 최초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몇 분이나 자녀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지, 자녀의 행동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혹시 아이가 말을 걸어와도 못듣지는 않는지, 아이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지, 아직 유아를 둔 부모라면 최초의 대화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귀찮아서 아기에게 비디오 테이프나 틀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진정으로 자기 아이가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아이의 눈을 쳐다보고, 아이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아이를 만져주고 얼러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